



한국 서울 성전의 새 회장과 메이트론

한 국 서울 서 스테이크의 오희근 회장이 한국 서울 성전의 새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그는 서울 성전의 13번째 성전 회장으로 봉사하게 되었으며, 그의 부인 최명순 자매는 그와 함께 메이트론으로 봉사하게 되었다. 김영년 회장과 정삼권 회장은 각각 제1보좌와 제2보좌로 봉사를 계속 하게 되었으며, 박은경 자매와 강일심 자매 역시 메이트론 보조로 계속 봉사하게 되었다.

1957년에 출생한 오희근 회장은 교회에서 장로 정원희 회장, 워드 선교 지도자,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서울 스테이크 회장(1997~2003), 한국 서울 성전 사무장(2005~2017), 지역 칠십인(2009~2015), 북 아시아 지역 커뮤니케이션 책임자(2017~2020)로 봉사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역 커뮤니케이션 봉사 선교사로 봉사했다. 오 회장은 두 개의 화장품 기업에서 관리자로 근무했으며, 교회의 한국 서비스 센터에서 시설부장 및 인적자원부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오희근 회장은 침례를 받은 직후에 최명순 자매와 결혼했으며, 결혼 후 곧이어 아내에게 침례를 주었다. 최명순 자매는 워드 초등학교 회장, 워드 및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을 비롯한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오 회장과 최 자매는 슬하에 아들 오민환 형제와 딸 오민정 자매를 두었으며, 두 자녀 모두 결혼하여 각각 두 명의 자녀가 있다.

오희근 회장은 군복무 시절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던 중에 교회를 알게 되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했다. “수많은 교회가 서로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서 어느 것이 참된지를 알고 싶었다.” 어느 날 동료 병사가 말했다. “참된 교회를 찾으려면 내 친구와 상의해 봐. 좋은 친구인데 자신이 진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오 회장은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났다. 그는 사물함에 경전을 두 권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다른 하나는 몰몬경이었다. 한 시간 가량 대화를 나눈 후, 오 회장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당신이 진리를 찾았다고 믿습니까?” 그는 “예”라고 간결하게 답했다. 그 후 오회장은 2년 동안의 군 생활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부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전역 직후에 그 병사가 알려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찾아가 교회에 가입했다. ■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충주 와드 박희영 자매



박희영 자매와 박희영 자매의 딸 김수영 자매의 침례식



김부성 형제의 침례식



김부성 형제 아들 김시우 형제 침례식

어느 날 저녁, 남편 김부성 형제가 “길에서 외국인 선교사님을 보았는데 ‘정말 잘 생겼어!’”라는 말을 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토요일에 남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러 가고 했다. 바람도 쐬고 ‘그렇게 잘 생겼다’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님을 구경(?)도 할 겸, 정말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뜻도 없이 우리 가족 5명은 그냥 교회(온천 와드)로 가게 되었다.

남편 김부성 형제는 이렇게 회상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선교사들이었는데 얼굴이 아주 밝고 좋아 보였어. 그래서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

우리 가족은 교회 로비에서 두 분의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다. 남편은 그곳에서 장로님들로부터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같이 간 나와 아이들은 그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교회 로비에서 두리번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교회는 조용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조용히 닫힌 방문들, 벽에 걸린 몇 점의 그림, 바닥에 깔린 카펫 등 내 기억에 교회는 소박하고 단순했다.

교회의 첫 느낌은 편안했다. 낯선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의례히 그 옆에서 말을 붙이거나 선교활동을 위해 가까이 오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게 우선은 편안했다. 또한 의아하기도 했다.

이런 편안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와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얼떨결에 교회를 방문하였다.

이후 시간이 좀 흘렀고 나는 아이들과 같이 영어 회화반에 참석하게 되었다. 거기서 여러 자매 선교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레베카 덕슨 자매님과 친분이 깊어지게 되었다. 그분을 통해 할로윈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에 초대되어 교회분들을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교회 활동 모임을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큰아들 도영이는 자매 선교사님들과 교회 회원분들이 가족같이 따뜻하게 느껴졌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연결되어 오래도록 지내고 싶었고, 이것이 침례 결심을 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도영이는 스스로의 결심으로 선교사들과 혼자 복음 토론을 하고, 다음 해인 2019년 1월에 침례를 받았다.

나는 당시 자매 선교사님들의 순수함과 맑음, 편안함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회원들에게서도 따뜻하고 편안함을 느꼈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존중하는 태도와 진지한 자세는 참 인상적이었다. 둘째 수영이와 막내 시우는 교회 활동 모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교회의 첫 느낌으로 강하게 남아 있다.

도영이가 침례를 받은 다음 달에 우리 가족은 부산에서 갑작스레 충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낯선 지역인 충주로 와서 1-2년은 가족들 모두에게 힘든 시험의 시간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나에게 큰 의지와 힘이 되었다. 충주 와드에서 봉사하시던 황지수 자매 선교사님의 도움과 사랑에 큰 힘을 얻어 나와 둘째 수영이가 침례를 받게 되었다. 신심 깊은 불교 신자인 부친을 의식해서 침례를 망설이던 남편도 현실적인 어려움 중 하나가 마음 속 기도의 응답으로 극적으로 해결되면서 마침내 침례를 받고 곧 이어 막내 시우도 침례를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간 것 같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주심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복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해외 이주민들의 겨울나기’ 물품 기부

광주 스테이크 헬핑핸즈 봉사 활동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한국 헬핑핸즈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은 한국에 있는 해외 이주민들을 위한 물품들을 <유니버설 문화원 이주민 쉼터>에 기부했다. 광주 스테이크 신권 지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들은 지난 크리스마스 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이주민들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던 중 광주 동구에 있는 바수무쿨 원장이 운영하는 <유니버설 문화원>의 이주민 쉼터를 알게 되었다. 유니버설 문화원은

해외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을 위한 도움과 쉼터를 제공하는 곳으로 월 이용자가 100명이 넘는 대규모의 자선봉사단체이다.

최근 광주를 찾는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던 때에 광주 스테이크 회원들은 입지 않는 깨끗한 옷들과 겨울을 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와드별로 모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물품 기부를 요청하자마자, 각 와드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물품이 와드와 지부로 모였고 이 물품들은 스테이크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서영주 형제에 의해 광주 스테이크 센터로 수합되었다. 이렇게 모인 수많은 옷가지, 가전제품, 생활용품, 가

구 등을 분류 정리하고 포장하기 위해 상호부조회 자매들, 장로정원회 형제들 및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 문화원 측에서도 회원들과 함께 물품들을 정리하면서 우정을 쌓았다.

이번 헬핑핸즈 자원봉사에 참여한 광주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양복희 자매는 “봉사는 기쁨입니다. 오늘은 하나도 힘들지 않고 행복한 마음뿐입니다”라고 말했다. 스테이크 회장단 1보좌인 김종인 형제는 “따뜻한 크리스마스 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라는 야곱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이번 자원봉사의 의미를 전했다. ■

새해 인사와 함께 나누는 그리스도의 사랑

서울 동 스테이크 교문 와드 헬핑핸즈 봉사 활동

서울 동 스테이크 교문 와드 회원들은 지난 1월 27일 임인년 새해를 맞아 구리시 종합 사회 복지관과 함께 관내의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 등 총 80 가구에 설 명절 음식을 전달하였다.

이번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은 북아

시아 지역의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총 11명의 교문 와드 회원들은 아침 일찍 구리시에 있는 복지센터로 모였다. 회원들은 우리 설에 걸맞은 알록달록한 삼색 전을 정성껏 요리하고 과일과 밑반찬 및 떡국 재료를 넣은 상자를 준비했다. 이로써 교문와드 회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계층의 이웃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 헬핑핸즈 봉사에 참여한 교문 와드 김희정 자매는 “코로나로 인해 봉사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와드 회원들이 오랜만에 함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구리시 종합 사회 복지관 안옥경 부장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고, 국가 예산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는데, 헬핑핸즈의 도움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



복음이란 나에게 감사와 행복이다.

강남2와드 정숙현 자매

모 사이야서에서 베냐민 왕이 말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모2:41)는 40대에 침례 받아 87세의 나이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식일을 거르지 않고, 한국에 성전이 헌납된 이후 빠짐없이 매주 성전에 방문하며 느꼈던 행복을 말해주는 구절 같다. 내 인생에서 지금까지 받은 축복 중 가장 큰 축복은 참된 교회에 속해 하나님께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1935년에 태어나 전쟁통에 피난지에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이후 많은 다른 교회들을 거쳐 40대가 되어 서야 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나는 결혼 후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댁에서 매달 고사를 지내는 것이 고역처럼 느껴졌었다. 몇 년이 지나 남편이 당시 교세를 확장하던 통일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함께 통일교에서 수년간 통일교 교주의 최측근이 되어 교류하고 교회에서 요직을 맡아 신자로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점점 교회가 진리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남편과 나는 통일교를 떠나 함께 참된 예수그리스도의 교회를 찾기 시작했다.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등 많은 교회에 참석했지만 쉽게 평화와 영을 느낄 수 없었던 어느 날, 집에 선교사들이 방문했고 남편은 진리를 찾아 먼저 침례를 받았다. 하지만 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을 뿐더러 옥상에서 빨래를 널다 넘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많이 다친 후 두통으로 인해 복음 토

론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선교사의 방문을 거절하고 침례는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선교사들은 아픈 나를 위해 금식하기 시작했고 기름부음으로 병자축복을 해주었다. 나를 따라다니던 두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적으로 나는 복음 토론을 무사히 마치고 침례를 결정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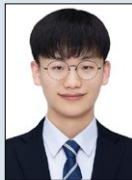
당시 나는 40대 중반이 훌쩍 넘은 나이였지만 남은 생애를 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진정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침례 받은 후 나는 50년 가까이 매일 아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몰몬경을 읽고, 성전이 헌납된 이래로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 성전에 다니며 모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지만 나 또한 신앙의 시련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힘든 고비와 어려움 속에서도 몰몬경 읽기와 성전 참석, 십일조 등 모든 계명에 충실하려 노력했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 아낌없이 축복을 부어 주셨다. 시련과 시험의 기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신 건강과 행복이라는 축복에 감사하며 또 힘을 얻어 교회와 성전에서 봉사하며 보낸 하루하루가 이제 50년의 세월이 되어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생에서 참된 교회를 알고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생을 통틀어 가장 감사한 일인 것 같다. 우리네 삶속에서 50년 가까이 지속되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베냐민 왕이 말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모2:41)로 이 생애가 다하는 날 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전임 선교사 4명



박서연
경기 스테이크
분당 와드
부산 선교부



조동현
서울 스테이크
일산 와드
부산 선교부



하혜정
서울 동 스테이크
교문 와드
유다솔트레이크 템플스퀘어
(임시 선교부: 부산)



한성관
경기 스테이크
평택 와드
부산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신정 지부 지부 회장: 강현오 형제(전임: 정대일 형제)
구미 와드 감독: 김재균 형제(전임: 박대영 형제)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 fb.cp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분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